



코리아경제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101




오롬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indocity1991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 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양국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대한민국 서울(2026.4.1.)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주요 내용

■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중견국으로서의 공통의 가치 공유

국제사회 평화 및 안정과 관련해 한-인도네시아의 공통의 역할 및 책임 공유

■ 16개의 양해각서(MOU) 체결

외교, 경제, 과학기술, 의료, 에너지 협력 등 체결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분야별 실질 협력 이행 체계 마련

한-인도네시아 양해각서 체결 주요 내용

■ 정치·안보·재난 대응 (3건)

①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양해각서

· 외교부 장관 - 외교부 장관

② 산불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산림청장 - 산림부 장관

③ 산림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기본약정

· 산림청장 - 산림부 장관

■ 교역·투자·산업(5건)

④ 경제협력 2.0에 관한 양해각서

· 산업통상부 장관 - 경제조정부 장관

⑤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지식재산처장 - 법무부 장관



장관

⑥ 한국수출입은행 -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간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수출입은행장 - 다난타라 인베스트먼트 기관장

⑦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 다난타라 인베스트먼트 기관장

⑧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산업통상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 첨단기술·에너지 전환·녹색경제(8건)

⑨ AI 기본의료 및 인적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보건복지부 장관 -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장관

⑩ 디지털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통신디지털부 장관

⑪ 데이터 및 통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 국가데이터처장 - 통계청장

⑫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외교부 장관 -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⑬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발지원공사 -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 다난타라 인베스트먼트 기관장

⑧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산업통상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 첨단기술·에너지 전환·녹색경제(8건)

⑨ AI 기본의료 및 인적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보건복지부 장관 -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장관

⑩ 디지털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통신디지털부 장관

⑪ 데이터 및 통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 국가데이터처장 - 통계청장

⑫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외교부 장관 -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⑬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⑭ 탄소 포집 및 저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양해각서

· 산업통상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 첨단기술·에너지 전환·녹색경제(8건)

⑨ AI 기본의료 및 인적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보건복지부 장관 -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장관

⑩ 디지털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통신디지털부 장관

⑪ 데이터 및 통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 국가데이터처장 - 통계청장

⑫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외교부 장관 -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⑬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⑭ 탄소 포집 및 저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⑮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해양수산부 장관 - 경제조정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인적자원개발문화조정부 장관

⑩ 디지털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통신디지털부 장관

⑪ 데이터 및 통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 국가데이터처장 - 통계청장

⑫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외교부 장관 -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⑬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⑭ 탄소 포집 및 저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⑮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해양수산부 장관 - 경제조정부 장관

□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환경부 장관

양국은 서로를 이끌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온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입니다.

- 한-인도네시아 확대회담 모두발언 中(2026.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PT. DONG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인니 대통령, 미 무역압박 속 ‘국익 우선’ 전략... 무역협정 탈퇴 가능성 시사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과 관련해 국익을 해칠 경우 언제든지 협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즉각적인 탈퇴를 시사한 것은 아니며, 협정 비준도 단기간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7일 합발랑 자택에서 기자 및 경제학자들과 만나 “어떤 협정이든 국가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떠날 수 있다”며 “기존 법규와 충돌하는 조항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RT)의 일부 조항이 광물 수출 금지, 외국인 지분 제한, 언론·출판 규제 등 기존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국경 간 서비스 규정은 글로벌 플랫폼의 수익 공유 의무

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각국의 적용 법률이 우선한다”며 국내 제도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라보워는 핵심 광물 분야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열려 있지만, “국제 시장 가격”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20년에 도입한 원광 수출 금지 정책 역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업정책의 핵심인 국산부품 사용조건(TK DN)도 계속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외국인 지분 제한 문제도 쟁점이다. 현행 법상 미디어, 방송, 광업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은 20%로 제한돼 있으나, 협정 초안에는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호무역협정(ART) 비준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조정부 국제경제협력 담당 부국장 에디 뿌리오 뿌부디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법적 불확실

성이 발생해 비준이 당장 추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한 것으로, 상호무역협정(ART) 역시 같은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0월 미국과 별도의 상호무역협정(ART)을 체결했지만, 올해 3월 해당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말레이시아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19% 관세도 효력을 잃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과잉 산업 생산능력’과 강제노동 관련 법 집행 미흡 여부를 조사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 공청회는 4월 28일부터 시작되며, 조사 결과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10% 기본 관세의 종료 시한과도 맞물려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무역부 국제무역협상총국장 자프미코 브리스 위작소노는 “적극적 방어”를 통해 미국 측 주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리안디 락소노 연구원은 정부가 ART 일부 조항만 선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도 있다”며 “필요할 경우 협정 탈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탈퇴 시 미국이 추가 제재나 관세를 부과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301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준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정부, 세금신고 마감 4월 30일로 연장... 개인·법인 동일 적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테와 재무장관은 25일 개인 연간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한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재무부의 공문을 통해 공식화될 예정이다. 이번 기한 연장은 일부 납세자들이 ‘코르텍스(Coretax)’ 시스템 접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고 절차에 차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뿌르바야 장관은 “SPT 신고 기한



을 한 달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정으로 개인 납세자의 신고 기한은 법인 납세자와 동일하게 4월 30일로 일원화된다. 앞서 비모 위자얀또 국제청장은 올해 신고 기간이 라마단과 이슬 피프리 연휴와 겹친 점을 고려해 기한 연장 가능

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기준 2025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 건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88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1,500만 건의 59.1% 수준에 그친 수준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 이란 전쟁으로 원자재 공급 위기 경고

모노에틸렌글리콜 85% 중동 의존...분쟁 장기화 시 가격 급등 불가피, 수출 시장 동시 압박 우려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중동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섬유 및 섬유제품(TPT·Textile and Textile Products) 산업이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업계는 중동산 원자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물류 비용 상승, 수출 시장의 동시다발적 압박이 맞물리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섬유 봉제공장.

중동산 MEG 의존도 85%...공급망 취약성 수면 위로

인도네시아 필라멘트 섬유·사생산자협회(APSyFi·Asosiasi Produsen Serat dan Benang Filamen Indonesia) 회장 레드마 기타 위라와스타(Redma Gita Wirawasta)는 지난 3월 6일(목)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모노에틸렌글리콜(MEG·Monoethylene Glycol)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수입량의 약 85%에 달한다고 밝혔다.

MEG는 폴리에스터를 비롯한 합성 섬유의 핵심 원자재로, 인도네시아 TPT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처럼 단일 지역에 대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구조적 취약성은,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국내 섬유 산업 전체가 즉각적인 공급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드마 회장은 “원자재 측면에서 우리는 MEG의 약 85%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분쟁으로 인해 유통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자재 공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럽으로의

수출도 물류 비용 증가와 운송 시간 지연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물류 통로의 봉쇄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중동 지역을 경유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출발하는 원자재 해상 수송 전반에 연쇄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원자재 자체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재고 2개월 수준 확보...장기화 시 가격 상승 압력 불가피

현재로서는 국내 MEG 재고가 약 2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즉각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분쟁이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레드마 회장은 “현재 MEG 재고는 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급 측 차질로 인해 MEG 가격이 오를 것은 확실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현재 중국산 원자재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중국 원유 공급이 줄어든 데다 이란산 가스 공급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동 분쟁이 단순히 인도네시아와 중동 간 양자적 공급망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원자재 수급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은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에 있어 MEG 이외 다수의 원자재 및 중간재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인 만큼, 중국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인도네시아 TPT 산업의 생산 비용 구조에 이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급 다변화 시동...말레이시아 대안 부상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섬유 업계는 중동에 집중된 MEG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도 소량의 MEG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해온 이력이 있어 수입처 전환에 따른 행정적·물류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레드마 회장은 “말레이시아로 수입처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며 “가격은 확실히 중동(아랍산)이 더 저렴하고, 말레이시아산이 조금 더 비싸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에도 소량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수입처 전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 역시 자체 생산 능력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동산 원자재의 대안을 찾을 경우 말레이시아산 MEG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몰려 가격이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재 공급원의 다각화와 함께 국내 MEG 생산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제 테레프탈산(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등 폴리에스터 생산에 필요한 또 다른 핵심 원자재는 국내 조달 비중이 95%에 달해 공급 차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레드마 회장은 “PTA 등 다른 주요 원자재는 95%가 국내에서 공급된다”고 밝히며, 공급망 취약성이 현재로서는 MEG에 집중되

어 있음을 강조했다.

수출 시장도 ‘이중 위기’...유럽·미국 동시 압박

원자재 공급망 문제와 함께, 인도네시아 TPT 산업의 수출 시장도 동시다발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어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TPT 수출의 약 30%는 유럽으로, 40%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두 시장이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조다.

유럽 시장의 경우, 중동 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등 중요 해상 물류 루트가 불안정해질 경우 운송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나 수출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난 2023~2024년 홍해 위기 당시 수에즈 운하 우회로 인한 물류 비용 급등이 인도네시아 섬유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그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은 상호 관세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별도의 무역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나 무역 제한 조치가 단행될 경우, 인도네시아 섬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주력 수출 시장인 유럽과 미국에서의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위기’ 시나리오는 단순한 원자재 공급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드마 회장은 “이는 생태계 전반의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 시장 잠식도 심각...수입산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 Air Cargo
- Sea Cargo
- Warehouse
-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60% 차지

수출 부문의 위기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압박도 인도네시아 TPT 산업이 직면한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로 꼽힌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섬유 시장에서 수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내 섬유 기업들이 정착 자국 시장에서조차 외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섬유 수출국들이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덤핑' 수입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산에 비해 높은 생산 비용 구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섬유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레드마 회장은 이와 관련해 “성과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수입 제품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장을 국내

산업이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요청을 넘어, 불공정 덤핑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강화, 원산지 규정 엄격 적용, 국내산 우선 구매 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정부에 재정 지원 패키지 요구

공급망 위기와 수출 시장 압박, 국내 시장 잠식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TPT 산업은 정부를 향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가 제시한 핵심 지원 수단에는 생산세 감면을 위한 PPN(DTP(사치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확대, 전기요금 할인, 그리고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레드마 회장은 “정부가 PPN(DTP, 전기요금 할인, 이자 보조금 등 덤핑 수입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나 기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는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섬유 기업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금융 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이러한 생산 비용 구조적 불리함을 해소하지 않는 한, 외부 충격에 대한 산업의 취약성은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 진단...구조적 대응책 마련 절실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 분쟁이 인도네시아 TPT 산업에 가하는 충격이 단기적 위기에 그치지 않고, 그간 누적되어온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한꺼번에 드러내

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원자재의 특정 지역 편중, 수출 시장의 양대 시장 집중,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기의 심도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네시아 TPT 산업은 한때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수백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었으나,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신흥 섬유 수출국과의 경쟁 격화, 노동 비용 상승, 기술 혁신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최근 수년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왔다. 이번 중동 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위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산업에 또 다른 큰 짐을 얹는 격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위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조달 다변화 및 국내 원자재 생산 능력 확충, 수출 시장 다각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산업 고도화, 친환경·스마트 제조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TPT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정부, 업계, 금융 기관,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발전 협의체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으나, 섬유 산업이 인도네시아 제조업 및 고용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소속한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부가 신속히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중동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인도네시아 TPT 산업이 직면하는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이 결정될 것인 만큼, 업계와 정부 모두 긴밀한 공조 아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유가 급등 대응 '주 1회 재택근무' 도입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차원의 재택근무(WFH)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안파라뉴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아이르랑가 하르다르포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19일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근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빠라보워 수비안포 대통령과의 회의 이후 이같이 설명하며, 해당 정책이 에너지 비용 상승과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주 5일 근무 체제에서 하루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것으로,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은 물론 민간 부문까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시행 시점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피뜨리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 시행 기간은 국제 유가 흐름과 글로벌 분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빠라보워 대통령은 해당 계획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동량 감소를 통해 연료 소비를 약 20%, 즉 현재 연료 사용량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내각 전체회의에서 “연료 소비 절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아무런 노력 없이 안전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지침을 마련 중이며,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최종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안파라뉴스/자카르타경제신문]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메리야스 하나로 71년... BYC, 인도네시아 공략하며 'K-내의' 전파

섬유, 의류, 신발, 호화품 업종이 20일 글로벌 소비 심리 회복과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힘입어 1.90%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섹터로 분류되며 소외받았던 의류주들이 탄탄한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를 바탕으로 재평가(리레이팅)되는 양상이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종목은 BYC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보유 부동산 가치와 자산 재평가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15.18% 상승한 5만 3100원에 거래 중이다.

내의 산업의 산증인인 BYC가 전통의 제조 역량과 현대적 유통 전략을 결합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 살결을 책임지는 대표 내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과 광고대행 자회사를 거느린 견실한 그룹사 체제를 갖췄다.

BYC의 핵심 경쟁력은 원단 확보부터 최종 완제품 출고까지 이어지는 일관 생산체계에 있다. 엄격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바탕으로 메리야스류 제품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내의 사업을 넘어 건설업과 임대업으로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브랜드를 잇따라 선보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채널 다변화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면사 제조 기업인 경방 역시 자산 가치 부각에 6.96% 상승하며 뒤를 잇고 있다. 우선주인 BYC와 전통의 면방직 기업 대한방직도 5%대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지주사 및 대형 브랜드사들의 반

등도 매섭다. F&F홀딩스가 5% 상승하며 지주사 중심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어 일신방직과 전방이 나란히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국내 대표 여성복 기업인 한섬은 5% 상승한 2만 6550원에 거래되며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강자들도 주주 회복에 웃고 있다. SG세계물산과 의류 수출 전문 씨사이트가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이어 형지&C와 글로벌 OEM 대장주 영원무역이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월비스와 핸드백 제조사인 제이에스코 퍼레이션 역시 상승 흐름에 몸을 실었다.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종목들의 질주도 이어진다. 'MLB'로 유명한 F&F가 3.16% 상승한 6만 2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신영와코루와 소재 전문 휴비스가 상승 중이다. 지주사인 영원무역홀딩스와 패션 전문 기업 LF 역시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생산 기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활약도 돋보인다. 화승엔터프라이즈와 소재 전문 디케이앤디가 나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어 한세엠케이와 지주사인 한세에스24홀딩스가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신규 상장주인 폰드그룹과 애머릿지도 2%대 강세를 유지 중이다.

애슬레저 및 스포츠웨어 섹터 역시 활기가 가득하다. '젝시믹스'를 운영하는 브랜드엑스코 퍼레이션(젝시믹스)이 상승 중이며, 금속 파이프 및 소재 기업인 TP도 오름세다. 학생복 강자 형지엘리트와 의류 제조사인 인디에프 역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신발 및 소재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도 뚜렷하다. 화승인더와 가

발 소재 전문 폴라리스우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영복 브랜드 배럴과 프리미엄 가방 제조사 동인기연도 우상향 중이다. 이어 합성피혁 제조사인 덕성과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상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의류 수출주들의 우상향도 견조하다. 한세실업과 형지글로벌이 나란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여성복 전문 대현과 테마파크 및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이월드 역시 상승 중이다. 유통 강자인 신세계인터내셔널과 패션 브랜드 코데즈컴비인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매수 온기는 업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지엔코와 좋은사람들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빅사이즈 여성 의류 플랫폼 공구우먼과 모피 전문 진도가 오름세다. 피혁 제조사인 조광피혁과 모직

물 전문 아즈텍WB 역시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중소형 의류주들도 소외되지 않고 상승 흐름을 잇고 있다. 호전 실업과 온타이드가 나란히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이어 원풍물산과 신규 상장 의류사인 노브랜드가 상승 중이며, TBH글로벌과 골프웨어 전문 크리스에프앤씨도 견조한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패션 플랫폼과 소재 기업들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 패션플랫폼과 필터 및 마스크 소재의 씨엔투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언더웨어 브랜드 비비안과 클린룸 소모품 전문 케이엠이 오름세다. 피혁 가공의 유니컴, 대원화성, 지주사 이스트아시아홀딩스를 비롯해 신원과 덕성우까지 모두 상승하며 장을 마감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섬유·의류 업

종의 저평가 매력이 극대화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패션산업 전문가는 "K-컬처의 확산으로 국내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단순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금 보유량이 많고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면화 가격 등 원자재 비용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는 2026년은 의류주들에게 기획의 해가 될 것"이라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거나 글로벌 OEM 공급망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자산 가치가 높은 중소형주의 깜짝 반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핀포인트뉴스

인도네시아, 호주 이어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아시아 첫 사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및 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는 물론이고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 로블록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계정 생성이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소 이용 연령을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도록 대응할 의



무를 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각 플랫폼별로 단계적으로 새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 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엑스와 틱톡이 이날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할 것"이라며 "분명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8000만명으로, 이 중 어린이와 청소년은 약 7000만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부모 통

제 가능, 위치 추적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춘 일부 저위험 플랫폼은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한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왔다. 미성년자가 엑스나 틱톡 계정을 만들면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 SNS 가입 금지를 두고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중앙일보]



BEST SELLER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PT. INDOKON MULTI SARANA, Jakarta, Indonesia

인니 르바라니노믹스, 의례를 넘어서 부의 재분배 메커니즘



▲이돌피트리 귀성 행렬 [자료사진]

이 글은 3월 24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실린 로니 P. 사스미타(Ronny P. Sasmita)의 에세이를 번역했습니다. 자본이 자카르타와 주요 도시에 몰려 있는 도시 집중 현상이 심한 경제 구조 속에서 매년 돌아오는 이슬람 명절인 이돌피트리(Iedul Fitri) 대이동은 경제적 '혈액'을 농촌의 실타래로 다시 보내는 방출 밸브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이돌피트리가 되면 자카르타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무딕(mudik, 귀성)' 행렬로 장관을 연출한다. 무딕은 단순히 재회나 향수, 어린 시절의 집과 익숙한 마을의 리듬으로 돌아가는 의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유기적이고 대규모로 작동하는 부의 재분배 메커니즘 중 하나다. 자본이 자카르타와 대도시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경제 체제에서, 이 연례 이동은 경제적 '생명선'을 지방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방출 밸브가 된다. 2026년, 소위 '르바라니노믹스(Lebaranomics)'라 불리는 이 현상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찾아왔다. 수십 년 만에 라마단과 이돌피트리의 전체 경제 주기가 1분기(Q1)에 도래했다. 1분기는 전통적으로 경제 활동이

다소 정체되는 시기이다. 르바라니노믹스와 이돌피트리는 인도네시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동성 주입이 없다면, 1분기 성장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등 외부 압력 속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본질적으로 2026년의 이돌피트리는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사실을 강조한다. 바로 경제 성장 동력이 '내수'에 있다는 점이다. 거의 1억 4,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이동은 단순한 물리적 도전이 아니라, 내부 경제 회복력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다. 주요 유료도로의 교통 정체와 붐비는 항구 뒤에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국가 성장을 안정시키는 역동적인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약 더 나은 인프라, 포용적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소비를 투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면, 무딕은 문화적 전통을 넘어 경제적 회복력의 초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 이 연례적인 대이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배당금이 널리 분배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김재훈의 세무상식

세무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종류와 제출 절차에 관한 규정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제 8 호 (2026년)

지난 2월 27일부터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제8호(2026년)가 시행되었다. 본 규정은 기존 재무부장관령 제228호(2017년)를 개정한 것으로, 세무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과 활용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일부에서 “국세청이 신용카드 고객 정보를 직접 들여다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규정의 본질은 개인 소비 내역의 직접적인 수집보다는 사업자의 매출 및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대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제출 의무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정부 기관, 금융기관, 카드사, 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국세청(DJP)에 세무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는 데이터의 종류 또한 기존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카드사 및 결제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 데이터는 향후 사업자의 매출 신고와의 비교 분석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세청의 데이터 수집 권한이 강화되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에 확보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사건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을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세무당국의 정보 접근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데이터 활용에 대한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세청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려는 시도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데이터 기반 세정 운영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음식점, 유통업, 서비스업 등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카드 매출과 세무 신고 매출 간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불일치가 보다 쉽게 드러날 수 있다. 과거에는 일부 누락되었던 매출도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세무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한인 기업의 경우에도 본 규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사 보고용 매출과 현지 신고 매출 간 차이, 이전가격 조정 과정에서의 매출 인식 문제 등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포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세무조사 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재무부장관령 제8호는 단순한 행정 절차



김재훈 대표

의 변경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데이터 기반의 세무 관리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신고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검증 중심' 환경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매출, 비용, 자산 관련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드 매출과 세무 신고 자료 간의 정합성 점검, 내부 회계 자료와 세무 신고 자료 간의 일치 여부 확인, 그리고 데이터 기반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전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美, 방글라산 의류·직물 관세 '0%' 상호관세 20% → 19%로 인하 및 일부 품목 면세 적용 미국산 면화·인조섬유 사용 생산제품 조건 제시...수출 물량에 따라 결정



미국산 소재로 만든 일부 의류·직물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 면제를 확정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월 9일 미국과의 새로운 협의를 통해 미국은 상호 관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고, 동시에 방글라데시는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방글라데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주요 무역국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 부과 이후 백악관과 오랜 시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미국 백악관은 양측 공동 성명에서 “이

번 합의가 양국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각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방글라데시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물론 특정 의류·직물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수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품목에는 미국산 면화와 인조섬유로 생산된 제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품목 물량은 미국이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는 섬유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의류산업은 2024년 기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 수익의 80% 이상(약 56조1,385억 원)을 차지하며, 약 400만 명 노동자가 종사 중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방글라데시

는 다양한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상당한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산 화학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콩 제품, 육류 등의 시장 개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양국 합의로 방글라데시는 미국의 식품, 의약품, 차량 운전 및 배출가스 규정을 인정해 미국산 제품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용이하게 됐다.

성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고,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항공기 및 에너지 제품 구매 계약을 이행키로 약속했다.

2024년 기준 미국과 방글라데시 상품 무역 적자는 총 61

억 달러(약 8조8,975억 원)다. 미국은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에서 최대 단일 시장으로, 2024년 총 수출액은 73억4,000만 달러(10조7,060억 원)였다.

미국의 이번 관세 인하 발표로 방글라데시는 이웃 국가이자 지역 경쟁국인 인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인도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18%의 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두 남아시아 국가는 의류, 신발, 농산물 수출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첫 번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을 때 25%의 관세를, 방글라데시는 37%의 관세를 부과 받았다.

[TIN뉴스]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 2026년 480억불 목표...” 세계 3위 굳힌다” 미국 시장 점유율 20.6%로 중국 제치고 1위 공급국 부상 고임금·관세 압박 속 자동화·친환경 전환으로 경쟁력 유지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이 2025년 수출 460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 48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약 270만 명을 고용하며 베트남 전체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 중국·방글라데시에 이어 세계 3위 의류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미(對美) 수출에서는 점유

율 확대가 두드러졌다. 2025년 1~7월 미국향 의류 수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9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 전체 의류 수입에서 베트남 비중은 20.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對美 의류 출하는 21% 감소해 69억 달러로 줄었다. 일본(33억 달러)·한국(22억 달러)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EVFTA·CPTPP·RCEP 등 16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비용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 의류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약 300달러로 방글라데시(약 95달러)·인도(약 145달러)의 2~3배 수준이며, 전체 생산비도 두 나라 대비 40~45% 높다. 여기에 미국의 상호관세(20~40%) 부과, 면



화·합성 원사의 95~100% 수입 의존, 수출용 직물의 60% 이상 해외산 조달 등 구조적 과제도 상존한다.

업계와 정부는 자동화 및 친

환경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일부 공장은 자동화 도입으로 1인당 하루 생산량이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영 섬유그룹 비나텍(Vinatex)은 직물 재활용과 친환경 섬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 업계와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투입물 비율 60% 초과, 온실가스 집약도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업계 단체 VITAS는 디지털화·지속가능성·시장 다변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출처: 국제섬유신문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K-이니셔티브 협의체 출범식'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이 인도네시아인상공회의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 지난 3월 10일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대사관 강당에서 'K-이니셔티브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K-이니셔티브(K-Initiative)란 대한민국이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

는 '퍼스트 무버'로 뛰어오르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국민주권정부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대사관 관계자들과 KOTRA, KOICA,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현지 진출 공공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을 포함해 80여 명이 참여했다. 출범식에서 윤순구 대사는 "K-이니셔티브 협의체는 경제·산업, 문화, 개발 협력, 한국학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이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날인 11일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제1차 K-이니셔티브 팀코리아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베트남 진출 총 38개 공공기관, 공기업,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협력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월드코리아]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이 인도네시아인상공회의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 지난 3월 10일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대사관 강당에서 'K-이니셔티브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2026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3/17)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1	ANUGERAH ABADI BERSAMA	2026.01.28			5 JT	
2	WOO SHIN GARMENT	2026.01.28			5 JT	
3	KAHO INDAH	2026.01.28			5 JT	
4	CITRA UNGGUL PERKASA	2026.01.28	20 JT			
5	UNGARAN INDAH BUSANA	2026.01.28			5 JT	
6	LEADERS WORLD	2026.01.28			5 JT	
7	SEYANG ACTIVEWEAR	2026.01.28			5 JT	
8	GOLDEN GARMENTS	2026.01.29			5 JT	
9	DAE DONG	2026.01.29			5 JT	
10	YEONHEUNG MEGA SARI	2026.01.29			5 JT	
11	GAYA MAKMUR	2026.01.29			5 JT	
12	ING INTERNATIONAL	2026.01.29			5 JT	
13	INKORDAN	2026.01.30		30 JT		
14	JM TECH	2026.01.30			5 JT	
15	DASAN PAN PACIFIC	2026.01.30			5 JT	
16	TAE WON INDONESIA	2026.01.30			5 JT	
17	MUTIARA BUSANA INDAH	2026.02.02	20 JT			
18	MYUNG SEONG MACHINER	2026.02.04			5 JT	
19	DREAMWEAR	2026.02.04			5 JT	
20	TP,INC TRADING JAKARTA	2026.02.05		30 JT		
21	GAYA INDAH KHARISMA	2026.02.05	20 JT			
22	SOLVE IT	2026.02.06			5 JT	
23	OROM CONSULTING	2026.02.06	20 JT			
24	MULTI WELL EMBROIDERY	2026.02.09			5 JT	
25	KNH GAMINDO JAYA	2026.02.09			5 JT	
26	MUARA TUNGGAL	2026.02.09			5 JT	
27	PT.SCENIC	2026.02.09			5 JT	
28	LIMANTARA INDAH MAKMUR	2026.02.09			5 JT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29	BLUE ROSE NARADO	2026.02.10			5 JT	
30	ANUGERAH ABADI MAGELANG	2026.02.10			5 JT	
31	MINU GARMENT SUKSES	2026.02.10			5 JT	
32	HANSOL PLEATS	2026.02.10			5 JT	
33	C- SITE TEXPIA	2026.02.11			5 JT	
34	WINNERS INTERNATIONAL	2026.02.12		30 JT		
35	PERMATA GARMENT	2026.02.12			5 JT	
36	RINA JAYA GARMENT	2026.02.13			5 JT	
37	MAJUEL	2026.02.13			5 JT	
38	GLOBAL BUSANA INTERNATIONAL	2026.02.13			5 JT	
39	SJ CONSULTING	2026.02.18			5 JT	
40	ZIBEN INDONESIA	2026.02.20			5 JT	
41	WOORI SUKSES APPAREL	2026.02.21			5 JT	
42	BINTANG GLOBAL ABADI	2026.02.23			5 JT	
43	PURNAMA ASIH SUR	2026.02.24			5 JT	
44	KG FASHION	2026.02.24			5 JT	
45	DONG JUNG INDONESIA	2026.02.25			5 JT	
46	YB APPAREL	2026.02.25			5 JT	
47	PT.ACE	2026.02.25			5 JT	
48	DOOSAN CIPTA BUSANA JAYA	2026.02.25		30 JT		
49	DONG IL	2026.02.26			5 JT	
50	SUKWANG INDONESIA	2026.03.05		30 JT		
51	HOKI MACHINE INDONESIA	2026.03.05			5 JT	
52	UNICORN	2026.03.06			5 JT	
53	DOORI LESTARI GARMENT	2026.03.10			5 JT	
54	JUN H INDONESIA	2026.03.10			5 JT	
55	HESED INDONESIA	2026.03.17	20 JT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불보다 빠른 기술 ... ‘난연 섬유’ “초박막 단열·피지컬 AI 소방로봇까지” 화재 대응 패러다임, 소재·로봇·데이터가 바꾼다



▲스위스 텍스틸 컬러 AG의 파이로셸은 4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테크 텍스틸 전시회에서 선보인다.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 화재가 산업 현장과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면서, ‘예방’을 넘어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둔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위스의 난연 섬유 혁신, 한국의 초박막 단열 멤브레인, 모빌리티 기업의 피지컬 AI 기반 소방 로봇까지,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화재 대응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공동 화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공통 키워드: ‘반응’과 ‘데이터’이다. Textilcolor AG는 열에 반응하는 섬유 구조며, 피엔에이티엑스(PNATX)는 열을 분산·차단하는 초박막 단열 열관리 소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데이터에 반응하는 자율 로봇 시스템으로 화재 대응의 시간을 벌고,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 기업의 기술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공통점이 분명하다. 화재는 완전히 막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를 줄이는 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불보다 빠른 기술 경쟁. 그 중심에 고기능성 섬유와 AI 기반 산업 플랫폼이 부상한다.

스위스 Textilcolor AG, ‘파이로셸’로 반응형 난연 시장 공략 스위스 섬유 기업 Textilcolor AG는 차세대 반응형 난연 기술 ‘파이로셸(Pyroshell™)’을 공개하며 보호복 시장의 진화를 선언했다. 이 기술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Techtextil 2026에서 첫 선을 보인다.

파이로셸™의 핵심은 ‘반응성 확장 흡연’ 기반 기능층이다. 평상시는 가볍고 유연한 착용감을 유지하다가, 180℃ 이상 열이나 화염에 노출될 경우 즉각 활성화된다. 내장된 팽창성 흡연이 최대 40~60배까지 확장되며 순간적으로 열 차단 장벽을 형성하는 구조다. 이는 화상 발생 전 대응 시간을 기존 소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응용 물질의 피부 낙하를 억제한다. 50회 산업 세탁 후에도 성능을 유지하는 내구성도 확보했다. 무엇보다 할로겐·인계 화학물질을 배제해 유해 연기 발생 우려를 낮춘 점이 차별화 요소다. ‘평상시에는 일상복처럼, 위험시에는 즉각 방어막으로’ 작동하는 반응형 안전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기존 난연 원단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한국 PNATX, 0.07mm 초박막 단열 ‘AeroMID™’로 열관리 플랫폼 제시 국내 나노섬유 소재 기업 PNATX는 전기나노방사 기반 에어로겔 복합 멤브레인 ‘AeroMID™ Series 2026’을 공개하며 단열 기술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섰다. 두께 0.07mm, 열전도율 0.024 W/m·K(25℃ 기준)를 구현한 이 소재는 ‘얇을수록 약하다’는 단열재의 통념을 뒤집는다. 전기나노방사(Electrospinning)로 형성된 3D 나노 섬유 네트워크와 실리카 에어로겔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다방향 열 분산(isotropic) 특성을 갖는다. PSU 기반 전자용 모델은 스마트폰·웨어러블 기기의 핫스팟 제어에, 메타아라미드 기반 모델은 소방·우주·배터리 모듈 간 열 확산 지연 구조에 적합하다. 특히 배터리 열

폭주 대응, 우주 시스템 단열, 방화복 라이너 등 고위험 산업 환경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랫폼형 단열소재’로 평가된다. 전통적 방열·단열 섬유가 보호복 중심이었다면, AeroMID™는 전자·모빌리티·에너지 산업까지 아우르는 열관리 인프라로 진화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현대자동차그룹, ‘피지컬 AI’ 소방로봇으로 재난 대응 혁신 소재 기술이 ‘몸을 보호하는 방패’라면, 현대자동차그룹의 무인 소방 로봇은 ‘위험 현장에 먼저 들어가는 전위대’다. 현대차그룹은 소방청과 공동 개발한 무인 소방 로봇을 실제 화재 현장에 투입하며 실전 운용 단계에 돌입했다. 6X6 인휠 모터 기반 전동화 플랫폼으로 360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며, 500~800℃ 고열 환경에서도 작동한다. 자체 부문 시스템으로 수막을

형성해 차체를 보호하고, AI 시야 개선 카메라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연기와 분진 속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더 주목할 점은 ‘피지컬 AI’ 전략이다.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온도·연무량·확산 속도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학습해, 향후에는 로봇이 스스로 화재 원점과 진압 우선순위를 판단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기술이 공공 안전 인프라로 확장되는 상징적 사례다.

난연 섬유, 나노 단열 멤브레인, 피지컬 AI 로봇 등 소재와 모빌리티, 데이터 기술이 결합하며 ‘재난 대응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불보다 빠른 기술 경쟁. 그 중심에 고기능성 섬유와 AI 기반 산업 플랫폼이 자리하고 있다. 출처: 한국섬유신문

제논, 인도네시아에 첫 해외 법인 설립 제조·공공 AX 수요 선점

제논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PT. 제논 글로벌 인도네시아’ 설립을 완료하고 자카르타에서 현지 오피스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초대 법인장에는 현지 시장 개척과 해외 사업 개발을 주도해 온 김태룡 해외사업개발 리드가 선임됐다. 제논은 지난 2023년부터 국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신발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비전 인공지능(AI) 기반 품질 검사 자동화 솔루션 기술검증(PoC)을 수행하며 해외 사업 역량을 축적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과를 실현했다.



▲고석태 제논 대표(왼쪽)와 김태룡 인도네시아 법인장(오른쪽)이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현지 오피스 개소식을 진행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제논 제공

이번 법인 설립은 고성장 중인 현지 산업 구조에 비해 부족했던 AI 솔루션 공급망을 파고들며, 디지털 전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논은 비전 AI 기반 품질관리 솔루션의 현지 공급을 본격화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현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또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의 진출을 가속화한다. 고석태 제논 대표는 “제논은 단기간의 진입이 아닌 지난 3년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검증된 AI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제조·공공 부문의 AX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군복에 중국산 쓰지 말자” ... 섬유업계, 국방섬유 국산화 추진

섬유산업연합회, 건의안 제출 임박 방상내피 등 4종 원사 국산화 추진 “중국산 저가공세 맞서 소재 자립” 태광 나일론, 효성 폴리우레탄 빛보나

태광산업, 효성티앤씨 등 국내 섬유업계가 방상내피를 비롯한 군 피복류 4종에 들어가는 원사(原絲)를 전면 국산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중국·동남아시아산 저가 공세로부터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국방 소재 공급망 자립으로 국가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업계에선 건의안이 반영되면 나일론을 비롯해 연간 약 200억 규모의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섬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국방 섬유 소재 국산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상반기 중으로 국회와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상내피, 방상외피, 궤도차량승무원복, 컴뱃셔츠 등 군 피복류 4종에 들어가는 원사의 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계는 향후 전술조끼, 침낭, 개인천막 등으로 건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청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조항이 ‘국내 생산’에 초점을 뒀 수입 원사를 사용해도 국내에서 염색·가공·봉제하면 국내 생산품으로 간주했다. 업계 관계자는 “군 피복류에 들어가는 원사의 약 70~80%가 외국산”이라며 “저렴한 중국·인도네시아산 원사를 활용하는 봉제업체가 공공입찰에서 유리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2021년부터 공공입찰 시 국산 원사를 사용한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국산섬유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전투복이 유일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올해 국방부 전투복 예산은 362억원으로, 국방 피복 예산(5854억원)의 약 6.2%에 해당한다.

업계에선 건의 대상에 오른 피복류 4종의 원사를 국산화하면 나일론 70, 폴리에스테르 125, 폴리우레탄 5t 등 연간 약 200억 규모의 국산 섬유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폴리에스테르는 방상외피 등 의류 전반에 사용되며, 나일론은 상대적으로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전술조끼 등에 쓰인다. 폴리우레탄은 스판덱스 섬유를 가공하는 원료다.

국내 유일한 나일론 생산업체 태광산업은 45%대로 떨어진 나일론 공장 가동률을 회복할 기

회로 보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한국 나일론산업은 코너에 몰렸다. 코오롱,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등이 국내 사업을 접은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스판덱스용 폴리우레탄 생산 기업 역시 효성티앤씨 한 곳뿐이다. 폴리에스테르는 대한화섬, 효성티앤씨, 휴비스, 도레이첨단소재 등 네 곳이 생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국가 안보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군 피복류와 장구류 전반에 ‘메이드 인 USA’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연간 6000억원 규모의 국방 섬유를 비롯해 경찰·소방복 등 단체복 시장까지 확대하면 조 단위 내수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인니 비보조금 연료값 5~10% 인상될 듯...전기요금은 유지

인도네시아에서 비보조금 연료 가격(BBM nonsubsidi)이 이르면 4월 1일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30일 콰스닷컴은 2026년 4월 1일 0시(WIB)를 기해 비보조금 연료(BBM) 가격을 최대 약 10%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 시장 변동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아이르랑가대학교(Unair) 경제학자 위스누 위보워는 “비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은 국제 시장 가격을 따르는 구조상 불가피한 결과”라며 “인상폭은 약 5~10% 수준, 최대 1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 유가 지표인 싱가포르 플랫폼 평균가격(MOPS)과 아거스(Argus) 지수를 주요 기준으로 꼽으며 “국제 유가가 오르면 소매 가격에도 즉각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 가격과 환율이 모두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소매 가격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비보조금 연료 가격은 2026년 3월 1일 기준을 따르고 있다. 휘발유 제품인 프르타막스(Pertamax)는 리터당 12,300루피아, 프르타막스 그린(RON 95)은 12,900루피아, 프르타막스 터보는 13,100루피아다. 디젤 계열인 텍스리프(Dexlite)는 14,200루피아, 프르타미나 텍스(Pertamina Dex)는 14,500루피아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보조금 연료 가격은 유지되고 있으며, 프르타리프(Pertalite)는 리터당 1만 루피아, 보조금 디젤은 6,800루피아 수준이다. 가격 인상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분기(4월~6월) 전기요금에 대해 선불과 후불제 모두 동일하게 인상없이 현행 요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콰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노스페이스, 세계 물의 날 맞아 인도네시아서 식수 지원 사업

영원아웃도어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월드비전과 함께 인도네시아 식수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노스페이스는 월드비전과 함께 올 한해 동안 인도네시아 티모르(Timor) 지역 ‘보네오에투네(Bone-Oetune)’ 마을 주민 약 7000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식수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깨끗한 식수의 중요성



▲노스페이스가 착한 소비 프로젝트 ‘노스페이스 에디션’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식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영원아웃도어 제공

과 식수 습관에 대한 교육 활동을 병행한다.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시작된 착한 소비 프로젝트 ‘노스페이스 에디션(EDITION)’을 통해 소비자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식수 및 식량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주요 협력기관인 월드비전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케냐, 잠비아, 캄보디아 및 콩고민주공화국 등 6개국의 약 9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인도네시아 ‘보네오에투네(Bone-Oetune)’ 마을에 대한 식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

작했다. 성가는 영원아웃도어 사장은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값진 경험은 없다’는 한결 같은 마음가짐 아래, 월드비전과 함께한 노스페이스 에디션을 통해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착한 소비 프로젝트의 실천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호르무즈 직격탄 맞은 섬유패션산업... “비용전가구조 깨지 않으면 붕괴”

중동 긴장 고조, 에너지·운임 동시 상승... 섬유패션계 이중 압박 IAF, “화석연료 의존성 낮추고 책임 있는 구매 관행 강화해야”

국제의류연맹(IAF)이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를 계기로 글로벌 의류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IAF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닌, 에너지 가격·생산비·수요 전반을 동시에 압박하는 복합 위기로 규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긴밀한 협력, 그리고 책임 있는 구매 관행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IAF는 걸프 지역이 글로벌 석유·가스 공급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섬유패션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섬유 산업은 폴리에

스터 등 석유 기반 원료 의존도가 높고, 방직·염색·가공 공정 또한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원사→원단→완제품 전 단계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긴장 고조는 해상 운임과 항공 운송 비용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남아시아 생산 거점에서는 물류 지연과 원자재 조달 불확실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AF의 문제 제기는 이러한 시장 신호와 일치한다. IAF가 이번 성명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한 지점은 위기 상황에서 반복되는 ‘비용 전가 구조’다. 성명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어들은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 인하 요구, 주문 취소, 납기 조정 등을 통해 부담을 제조업체로 이전해 왔다. 그러나 IAF는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IAF는 “제조업체는 무한한 비용 흡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생산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마진 구조에 놓인 아시아 생산국 제조업체들이 투자 여력을 잃을 경우,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IAF는 ‘책임 있는 구매 관행’과 바이어·제조업체 간 리스크 공유 구조를 제시했다.



▲이란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구매 관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ChatGPT AI생성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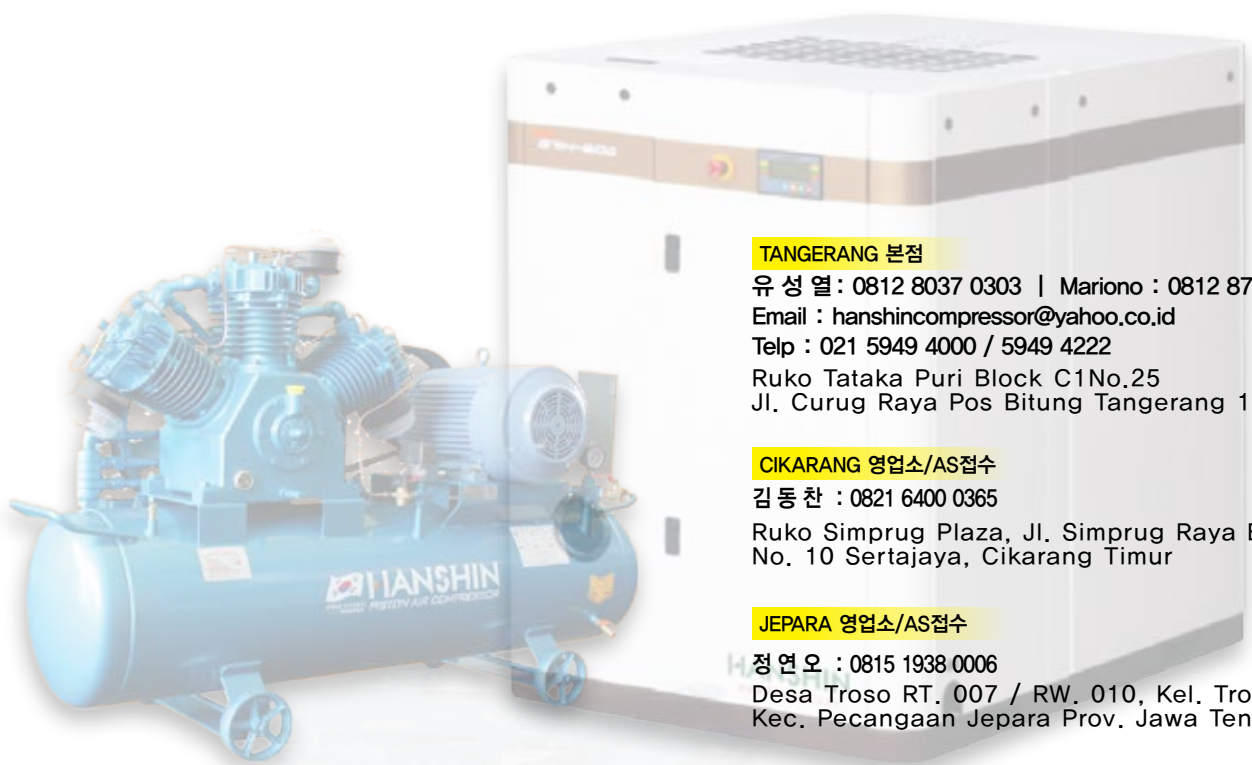
이번 성명은 동시에 글로벌 의류 산업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 즉 화석연료 의존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IAF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ESG 의제가 아니라, 향후 공급망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IAF와 국제섬유생산자연맹(ITMF)이 공동 추진 중

인 ‘의류 및 섬유 산업 혁신 이니셔티브(Apparel and Textile Transformation Initiative, ATTI)’를 통해 방글라데시, 튀르키예 등 주요 생산국에서의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